

다산포럼

우리에게 도덕은 가능한가



고 세 훈  
고려대 명예교수

“조직하지 말라, 부패한다.” 한때 저항 시인으로 이름을 떨쳤던 모 인사가 한 언론과의 대담에서 했던 말이다. 그의 이른바 ‘전향’을 둘러싼 알가알부가 한창인 때 나온 이 말을 두고 내 친구는, “걱정하지 마라. 인간은 조직 전에 이미 부패해 있다”고 옆에서 비아냥댔었다.

평소 ‘법과 원칙’을 앞세우며 점잖게 인간의 도리를 훈계했을, 가지고 배우고 누린 자들의 청문회 증언과 청와대의 대응이란 걸 보면서, 우리에게 과연 도덕은 가능한지라는 회의가 밀려온다. 말(馬)마저 들고일어날 시국에, 말(言)의 귀환을 외치는 함성에 온 나라가 요동쳐도, 말의 파산에 앞장섰던 이들의 거짓은 단호하고 거침없다. ‘하지 말라’ 하면 없던 욕망도 생긴다 했으니, 죽은 범조문을 입에 달고 살던 자들의 탐욕이 각별하다 한들 뭐 그리 대수이라 싶기도 하다.

청춘 특·특

내가 만든 틀



정 가 온  
청년활동가

‘대한민국 청년 1000명 고민 듣기’ 프로젝트 시작한 지 4개월 됐다. 광주, 부산, 전남, 서울에서 지금까지 청년 40여명을 만나면서 현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안정적인 삶, 여유 있는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던, 노력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현 시국이 화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다. 그렇게 해야 성공이라는 걸 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허탈감은 더 크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던 여러 가지 법칙들을 따랐고, 그것이 성공의 지름길이고 행복이라고 배웠다. ‘학교에 다녀야 한다’고 해서, ‘수능 성적에 맞춰서 대학가야 한다’고 해서 입학했다. ‘중

은 회사에 취업해야 한다’고 해서 미친 듯이 학점을 높이고 돈 들어 토익학원에 다녔다. 취업도 마찬가지였다. 돈 벌면 가정을 꾸려야 한다고 해서 결혼도 했다. 도대체 누가 대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취직을 해야 한다고 정해 놓았을까? 누가 정해 놓았다고 보단 사회가 자연스럽게 그런 법칙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그 법칙에 청춘의 시절이 있을 리 없다. 청년들은 현실이라는 공장에 들어가 모두 같은 모양을 한 제품으로 세공된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사랑하는 가족이 내 행복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그 공장 안으로 밀어 넣는다는 점이다. 다른 요소들도 참 많다. 남들과 다른 나의 발상과 행동은 다른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내린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특별한 나를 이상한 사람 만들어 버린다. 그 시선들은 너무 차가워서 나 자신을 그들과 동일화시키게 만든다. 이렇게 우리는 남들과 다르면 자신이 ‘틀렸다’는 생각에 다른 이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자신을 가둔다. 우리 사회에 용기 있는 이들이 암묵적

리가 깊어서 어느 쪽이 진정한 자아인지 구분할 수 없다. 지킬이 확인한 것은 악은 숨어 있고(Hyde hides), 상상 이상으로 강하며, 사실상 제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었다. 어느 날 그는 공원벤치에 앉아 자신이 지난 몇 개월간 행했던 선행들이 마침내 살인자 하이드를 영구히 제압했으리라고 흐뭇해하지만, 아래쪽을 보자 그의 손에 힘이 솟고 털이 자라면서 자신이 어느새 하이드로 되돌아갔다는 것을 발견한다. 도덕적 노력을 통해 자신을 구원하려 애를 쓸수록 번민은 오히려 커가고 내면의 악은 더 강해질 뿐이라고, 저자는 탄식하는 것이다. 더 이상 지킬도 돌아갈 수 없었던 하이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문제는 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나 불의에 대한 수치심마저 실종돼 간다는 점이다. 마키아벨리는 도덕을 ‘현상유지를 통해 이득을 보려는 사람들의 정치적 사사’라며 내쳤었지만(국준혁, ‘마키아벨리 다시 읽기’), 도덕의 정치적 공과를 따지는 일도 쉽지 않을 뿐더러 그것이 도덕의 폐기로 이어질 수는 더 더욱 없다. 가령 마키아벨리와 정확히 동시대를 살았던 토머스 모어는 권력(헨리 8세)에 맞서다 결국 죽임을 당했지만, 그의 삶과

‘유토피아’가 주는 도덕적 교훈은 오늘도 -살아 있다는 것 자체에 자괴감이 들 정도로 불의가 편만함- 살아 있어서 우리를 깨운다. 만일 영국 제국 팽창기의 정치인 윌리엄 월버포스의 도덕적 열정과 희생이 없었다면, 노예제가 폐지되기까지 인류는 훨씬 많은 세월을 기다려야 했을 것이다. 도스토옙스키의 말년 작품인 ‘카라마조프 형제들’은 “신이 없어도 도덕은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집요하게 던진다. 구원이 외부에서 오지 않는 한, 인간은 지킬 박사의 절망적 딜레마에 영원히 갇힐 운명일지 모른다. 전통사회에서 왕왕 관행으로 전해 온다는 이타심이란 것도 실은 공동체를 꾸려가기 위한 차선의 방책, 곧 이기심을 합리적으로 제도화시킨 데서 비롯됐을 것이다. 여하튼 도덕이나 우정이 그 자체로 목적이 되지 못하고 자기 이해만이 행동의 주된 준칙이 될 때, 시간은 모든 ‘진밀한’ -즉 이해관계로 얽힌- 관계들을 비틀어 버리기 마련이다. 시간과 더불어 국정농단의 주역들이 내부에서 먼저 파열음을 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그러나 도덕과 정적이 수단으로만 기능할지라도, 그것들로 인한 이익이 치러야 할 비용보다 큰 사회를 잠정적으로나마 타협해 내는 일마저, 우리에게겐 정말 그리 요원한가.

社 說

구치소가 국정 농단 최순실의 보호소인가

최순실 게이트 국정특위 위원들이 핵심 증인인 최순실 씨를 우여곡절 끝에 서울구치소 수감장에서 만났다. 하지만 최 씨는 위원들의 질문에 ‘모르쇠’로 일관했다. 최 씨는 누구의 지시로 무슨 돈으로 운영했는지 등 의상실 문제에 대한 질문에 침묵으로 답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심경을 묻는 질문에는 “대통령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다. 마음이 복잡하다”면서 더 이상 답을 하지 않았다. 또한 최 씨는 김기춘 전 실장과 우병우 전 수석도 모른다 했고 재벌들로부터 수백억 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미르·K스프즈재단 설립에 대해 “아이디어를 내가 안 냈다”고 말했다 한다. 국정 농단의 핵심 증거인 태블릿PC에 대해서도 “노트북을 사용하고 태블릿PC는 사용할 줄 모른다”면서 오리발을 내밀었다. 특위 위원들은 이에 앞서 어제 오전 서울구치소 대회의실에서 청문회를 진행하려 했으나 최순실과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이 출석하

지 않아 청문회가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조수현 서울구치소 의료과장은 최순실이 청문회에서 증언을 하지 못할 만큼 건강상 문제가 있냐는 질문에 거동하는 데는 크게 불편함은 없다면 서로 머뭇거리며 답변을 하지 못했다. 여기에 흉남식 서울구치소장은 조 과장의 질문에 대신 답변하려는 등 말을 막으려는 의도를 보이면서 뭔가를 숨기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키우기도 했다. 이에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구치소장의 발언을 문제 삼고 “법무부가 청문회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심증이 강하게 든다”고 반박했다. 정부의 청문 방해 의혹을 강하게 제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위원들은 ‘감방 신문’이라고 하겠다면서 오후 들어 구치소에 도착, 오랜 시간 기다린 끝에 최 씨와 몇 마디를 나눴지만 별 성과를 얻지 못했다. 어렵사리 이뤄진 이번 ‘감방 청문회’는 ‘구치소가 최순실 씨의 보호소’라는 사실만 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에

청문회 증인 불출석·위증 처벌 강화해야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26일 서울구치소에서 청문회를 열었지만, 의혹의 당사자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핵심 3인방은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1997년 ‘한보 청문회’ 이후 19년 만에 구치소 청문회가 열렸지만 성과는 없었다. 사실상의 ‘맹탕 청문회’다. 이날 김성태 특위 위원장은 “최 씨를 비롯해 안종범·정호성 등 핵심 증인 3명이 세 번째 동행명령에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세 증인에 대해 간사 위원 간 협의 를 거쳐 불출석죄 및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사실 이런 청문회가 소극 없이 끝나게 된 건 예견된 일이라는 지적이다. 증인 출석을 강제하기 어려운 제도의 탓이 큰 데다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은 청문위원들의 책임을 빼놓을 수 없기 때

문이다. 애초부터 최 씨와 국정 농단 일당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진실을 밝힐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이에 국정특위가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했지만 이들을 강제로 청문회 증인석에 앉히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청문회에 채택된 증인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국민과 국회를 우롱할 수 있었던 건 제도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관련 법률에는 청문회 출석 거부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 동행명령 거부 시 5년 이하 징역, 청문회에서 위증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법에 따라 처벌된 사례는 극히 드문데다 벌금형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는 중범죄를 저지른 증인들을 압박하기 어렵다. 더 이상 맹탕 청문회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불출석과 위증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기 고

아름다운 사람



신 종 인  
광주시 장애인재활협회장

20세기 최고의 지휘자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은 소프라노 조수미를 두고 ‘그녀의 목소리는 신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며 감탄했다고 한다. 가장 지휘자 주변 메타도 ‘100년에 한두 사람 나올까 말까 한 목소리의 주인공’이라고 했었다. 그녀의 뛰어난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조수미는 수많은 최초 타이틀도 보유하고 있다. 동양인 최초로 국제 콩쿠르 6개를 석권하였고, 세계 5대 오페라 극장에서 주연으로 공연한 동양인 최초의 프리마돈나이다. 그녀는 동물 보호와 권리향상에 힘쓰고, 아프리카 어린이 돕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부를 꾸준히 하고 있는 뛰어난 인품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특히 그녀는 2012년 공연차 머물던 호주의 한 특수학교에서 ‘휠체어 그네’를 타

는 중증 장애인학생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그것은 휠체어에 앉은 채 그네를 탈 수 있는 기구였다. 그녀가 놀란 이유는 휠체어를 타는 아동들은 그네 같은 작은 즐거움과 행복마저도 누릴 수 없는 현실에서 ‘휠체어그네’가 이를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후 국내 업체에 제작을 의뢰하여 현재까지도 재활센터와 장애인학교에 휠체어 그네 기부를 하고 있다. 세심한 곳까지 살피는 세기의 디바의 마음이 눈물겹도록 고맙기만 하다. 연예인들도 많은 기부와 선행을 펼치고 있다. 코미디언 유재석은 아름다운 재단에 매월 500만 원씩 12년째 기부해 오고 있는 것을 비롯해 나눔의 집, 위안부할머니, 연탄은행, 일본 우토로 지역, 기타 태풍이나 화재와 같은 재난피해 현장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그는 약자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일이라면 어디든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선행을 이어오고 있다. 그를 보면 항상 즐거운 것은 그가 코미디언으로서 우리를 즐겁게 하는 재능 이외에도 이러한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우리 지역에도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많은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 대표적인 예로 그린장례식장 회장이자 북구장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영관 회장을 들 수 있겠다. 1억 원 이상 기부양정을 맺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객역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 광주·전남 1호 회원이기도 한 김 회장은 꾸준히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나눔전도사로 유명하다. 2008년 이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장수축하금으로 매년 5000만 원씩을 효도기장을 위해 후원하고 있다. 광주시 북구 지역 저소득층을 위해 매년 5000만원의 성금과 성품을 25년간 지원하고 있다. 북구장학회에 2012년부터 3년간 5000만 원을 기탁하는 약정을 맺고 이를 실천했다. 우리나라에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 및 후원하는 조직과 단체가 많이 있다. 유니세프, 월드비전, 컴패션,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등이 대표적이다. 유니세프는 유엔기구로서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였으며 전쟁과 자연재해, 빈곤, 질병 등으로 고통받는 지구촌 어린이를 위한 차별 없는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유니세프 국가위원회는 기부금 순위에 있어서 미국과 일본에 이어 3위이며 그 뒤를 영국, 스웨덴, 독일 등이 있고 있어 우리나라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간접적으로 나타내 준다. 또한 우리나라 개인 후원자는 놀랍게도 60만 명이나 되며, 금액으로는 2015년 기준 개인후원금 1250억 원을 달성하였는데 순수하게 개인이 기부한 금액이 정부나 국가기관, 기업 등을 포함한 전체 후원금의

88.8%나 된다니 이 또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이 단체들의 주요사업은 에이즈 퇴치, 난민지원, 교육사업 등으로서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남미 등 세계 각국에 복합 미량영양소, 홍역예방백신, 담요, 말리야 치료제, 학습상자, 기타 구호품을 지원하는 등 손꼽기 어려운 정도로 많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단체들에 정말 감사한 마음이다. 다른 단체 역시 마찬가지로 각각의 활동으로 나름의 기여를 하고 있어 함께 감사를 전하고 싶다. 차가워지는 날씨와 함께 시국이 불안정하고 어수선하다. 그러나 풋볼로 대변되는 민초들이 모처럼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증거하고 스스로 권리를 되찾아 직접 행사하여 국가의 운영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정말 바람직하고 멋진 모습이라고 하겠다. 이와 함께 자칫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외면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들을 위한 나눔과 배려가 함께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아름다운 사회, 인간애가 넘치는 행복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어렵고 소외되어 있는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다. 약자를 돕고 배무는 것 또한 동시대를 함께 살아내는 국민으로서 소중한 권리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한다.

無 等 鼓

“저 남도의 해안에서 왔다는 / 맑은 국물도 아니고 건더기도 아닌 푸른 것, 다만 푸르기만 한 것/ .../임에서 오장 육부까지 이어지는 푸른 물줄기의 폭포여”

아도현 시인의 시 ‘매생이 국’ 가운데 일부이다. 시인은 ‘바다의 자궁이 오글오글 새끼들을 낳을 때 터뜨린 양수’라고 해야 할지, ‘숙취의 입술에 닿는 이 끈적이는 서러움의 정체를 바다의 키스’라고 해야 할지 묻는다. 송년회가 잇따르고 날씨마저 몹시 추운 요즘, 속을 풀고 추위를 물리치는 데 적격인 음식이다.

아마도 전라도를 찾은 외지인들에게는 흥어나 갯김치, 매생이, 젓갈류 등이 낯설지 않을까 한다. 다른 지역에서 쉽게 맛보기 힘든데다 맛이 워낙 독특한 음식 재료들이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매생이는 흥어와 마찬가지로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부터 전국화됐다고 알려져 있다. 매생이는 같은 녹조류인 김, 파래, 갈매와 다른 풍미가 있다. 꼭 이끼처럼 생겼지만 굴과 어우러지면 다른 차원의 맛을 연출한다. 음식문화 평론가 윤덕노가 쓴

‘음식으로 읽는 한국생활사’를 들춰 보면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널리 알려진 음식은 아니었다... 호남 인사들이 권력의 중심부로 이동하면서 이들이 즐겨 먹던 고향 음식, 매생이가 사회지도층의 식단에 퍼지기 시작했고 그 맛에 반해 대중적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고 설명한다.

사실 김을 위주로 양식하던 시절에는 매생이가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다. 하지만 웰빙을 추구하는 시대 흐름에 따라 이제는 양식장의 ‘주연’으로 당당히 바뀌었다. 매생이 국은 장모가 밑잘스라

운 사위를 골탕 먹이는 ‘미운 사윗국’이라고도 불린다. 매생이 국은 뜨거워도 김이 나지 않아 음식을 받지마자 덮석 손가락질을 했다가는 일만이 홀랑 벗어 자기 상상이다. 매생이는 그저 한 끼 배를 불리는 기호 음식만은 아니다. 맛은 물론 영양 성분도 풍부해 ‘우주 식품’으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묵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연말이다. 배를 든든하게 해 주고, 한파도 물리치는 한 끼 맛있는 음식처럼 매일 벌어지는 정치 역시 그러했으면 좋겠다.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 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2-0551 (FAX 222-9500)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년 1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